



전주비전대, 링투유 참가 봉사활동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7일 전공연계봉사단 2023 링투유에 참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링투유는 LINC 3.0 사업 참여학과의 전공직무와 연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전공기술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순천시 별량면 거처마을에서 진행 전주비전대학교를 비롯해 구미대학교, 동서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7개 전문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스 및 전기안전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재활바닥지, 이미용 및 네일아트, 방충망보수교체, 벽화그리기, 작은화분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전주비전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LED 등기구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등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기공학과 정승호 학생은 " 그동안 배웠던 전공지식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임진택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농업시스템학과, 환경정화·빵 나눔 봉사

전북대학교(장수군 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학생들은 지난 15~16일 관내 곳곳에서 환경정화활동과 빵 나눔 봉사를 펼쳤다.

재학생 15명이 참석한 이번 봉사활동은 학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15일 장안산을 오르며 산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6일에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빵 만들기 및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직접 만든 빵 100여 개를 관내 요양원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재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문경 학생회장은 "앞으로도 농업시스템학과 교육과정에 열심히 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뉴질랜드 해외 영어체험 성료

2023년 무주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 참여 학생 17명 전원 안전하게 귀국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학생중심 미래교육'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중학교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해외 영어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해외 영어체험은 Casbrook Intermediate School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현지 학생의 가정에서 숙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어체험 기간 중 학생들은 영어 몰입교육과 다양한 현지 체험 활동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과 함께 적극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제교류 담당관인 Tracy Goulden은 "8차에 걸쳐 사전교육을 받고 온 이번 무주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은 훌륭하게 수업에 적응하였고,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면서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무주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시청 펜싱부, 메달 싹쓸이

대통령배 선수권서 금메달 2·은메달 1·동메달 1... 출전 전 종목 메달 획득

익산시청 펜싱부가 대통령배 선수권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펜싱명가의 위상을 높였다.

시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63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익산시청 펜싱팀이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해 '실업 펜싱 최강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먼저 남자 에페 국가대표인 권영준 선수는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해 패자의 컨디션을 보여줘 압도적 기량으로 결승 무대에 올라 상대 선수를 15-12으로 제압하고 팀의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최신희 조예원 최수빈 최지영 선수는 결승전에서 서울특별시청팀을 맞아 45-41로 승리하며 팀의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권영준 정병찬 양윤진, 구영모 선수가 출전한 남자 에페 단체전 경기에서도 조심스레 금메달을 예상했으나 이렇듯도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기권하게 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는 국가대표 최지영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하며, 익산시청 펜싱부는 출전 전 종목 메달 싹쓸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수근 펜싱감독은 "이번 대회의 선전은 전지현 등 훈련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구슬땀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가 동메달을 추가하며, 익산시청 펜싱부는 출전 전 종목 메달 싹쓸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수근 펜싱감독은 "이번 대회의 선전은 전지현 등 훈련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구슬땀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릴레이

최경식 남원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인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 인증 릴레이에 지난 18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1월 5일 처음 시작한 것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이 기부 사진을 SNS에 인증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최영일 순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최 시장은 기부제 시행 후 선도적으로 1월 도내 13개 시·군과 우리 시 자매도시(경남 밀양시,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에 기부금을 기탁, 이번 행사는 실제 기탁 대신 기부 인증 릴레이에 참여를 하고 다음 인증 릴레이 주자로 남원시 자매도시인 정인화 광양시장을 지목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한궁대회 성료

익산시는 제1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한궁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종목인 궁궁,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린 생활체육 종목이다.

양손운동을 통해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워 신체의 좌, 우 평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인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경기는 한궁 핀을 왼손 5개, 오른손 5개씩 10회 투구후 합산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년 중앙부위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체전 남자 24팀과 여자 13팀 총 37팀으로 240명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갖고 있던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1시간 40여분 동안 열띤 한궁경기가 진행됐고 예선과 결선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표적핀을 응시하며 왼손, 오른손을 사용하여 힘껏 던지며 한궁대회를 즐겼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열한 경쟁 끝에 단체전 남자 3팀, 여자 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창현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장은 "올해 한궁대회 첫 번째 개최를 지원해준 익산시에 감사드리다"며 "한궁대회를 통해 여름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지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병현 고려화물·유업 대표, 완주 고향사랑기부

최병현 (유)고려화물, 고려유업 대표가 완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완주군 봉동읍 출신으로, 봉동읍 구미리에 위치한 (유)고려화물과 고려유업을 이끌고 있다.

군은 최 대표를 초청해 작은 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최 대표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도 대신했다.

최 대표는 "고향에서 받은 것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기회에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은 "고향 완주를 잊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주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발전에 사용돼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소속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담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 집수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군 농민회, 부귀면 다목적구장서 한마음대회 열려

전농전북도연맹 진안군농민회(회장 박시진)는 18일 부귀면 다목적구장에서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농민회 회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진안군 농민회는 농자재비 상승·인력 부족 문제와 폭우, 폭염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농업인의 근심이 더해 가는 상황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진안군 농민회는 김제시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자매결연을 통해 농·특산물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박시진 회장은 "직면한 농업환경에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지만,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들이 존경받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이끌어주는 농민회가 진안군의 핵심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이끌어주는 농민회가 진안군의 핵심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전대 축구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본선 진출

전주비전대학 축구부는 태백사에서 열린 '제6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 축구부는 서울대(1:3승), 동의대(0:1 패), 배재대(1:4승)와 같은 조에 편성, 2승 1패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전문대학으로는 전주비전대학과 신성대학이 진출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은 지난 '제8회 1~2학년 대학축구 연맹전' 8강이라는 성적에 이어, 이번 대회 3~4학년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선전을 했다.

전주비전대학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는 "4년제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갖도록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했다"며 "선수들에게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되게끔 학교 차원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수성동주민센터 악성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정읍시 수성동주민센터(동장 김행숙)는 18일 안전하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악성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해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수성동은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참고해 △대응관 △신고관 △대피관으로 전담반을 편성한 후 훈련을 진행했다.

각 전담반은 민원인 대응, 문제 발생 시 신고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등 상황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훈련은 정읍경찰서, 보안경비업체와 연계하여 진행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는 비상벨·CCIV·웨어러블 캠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신속 출동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행숙 동장은 "이번 모의훈련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임실군지부, 전주가맥축제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 임직원들은 지난 17일 전주가맥축제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와 'zgm.고향'으로 카드·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된 전주가맥축제에 임실치즈농협이 참여업체로 선정되면서 계획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최되는 축제로 작년 대비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진산 지부장은 "전주의 독특한 음식문화인 가맥을 즐기기 위해 모인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치즈농협은 올해 처음 전주가맥축제 참여업체로 선정돼 임실치즈피자와 치즈볼, 치즈스틱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임실치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전주가맥축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